

## KERI 정책연구 <양극화 논쟁, 그 오해와 진실>에서 발췌 최근 부모 소득별·학력별 학업성취도 격차 추이

KERI가 최근 발간한 <양극화 논쟁, 그 오해와 진실>(정책연구 12-1)에 따르면, 교육 양극화 심화에 대한 보도가 회자되면서 실증적 근거 없이 교육 양극화가 당연히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사실과 다름이 발견된다. 사교육비 외의 주요한 교육격차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격차를 분석한 결과 가구의 소득분위별 자녀 학업성취도 격차와 부모의 학력수준별 자녀 학업성취도 격차 모두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격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최근 들어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
  - 교육 양극화 심화에 대한 보도가 회자되면서 실증적 근거 없이 교육 양극화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팽배
  - 특히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커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격차로 이어져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소득수준으로 대물림된다는 인식이 팽배
- 학업성취도 격차는 사교육비 격차를 다음 세대의 부의 분배로 전달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중요
  - 주요한 교육지표라 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격차가 심화된다면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부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
- 최근의 교육 양극화 우려에 편승하여 실제로 학업성취도 격차가 확대되었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검토
  - 한국청소년패널 2003년~2007년 자료를 사용
    -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전교등수를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사용<sup>1)</sup>

1) Score = 100 - [(학생 전교등수/전교 학생수)\*100]

□ 최근 가구 소득 분위별 자녀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

-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소득가구 자녀와 고소득가구 자녀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오히려 감소
  - 가구소득 1·2분위에 대한 가구소득 9·10분위의 학업성취도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(2003)에 1.43이었던 학업성취도 격차가 고등학교 3학년에는 1.08(2007)로 감소

<표 1> 가구의 소득분위별 학업성취도 추이

구 분	가구소득 1·2 분위 (A)	가구소득 9·10 분위 (B)	(B)/(A)
중학교 2학년 (2003)	46.8점	66.8점	1.43
중학교 3학년 (2004)	51.4점	69.7점	1.36
고등학교 1학년 (2005)	60.8점	67.2점	1.11
고등학교 2학년 (2006)	59.3점	67.2점	1.13
고등학교 3학년 (2007)	61.9점	66.7점	1.08

□ 부모의 학력수준별 학업성취도 격차도 감소하는 추세

- 부모의 학력수준별 자녀의 학업성취도 격차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 모두 대졸이상 자녀와 부모 모두 고졸이하 자녀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오히려 감소
  - 고졸이하 부모의 자녀 평균점수 대비 대졸이상 부모의 자녀 평균점수 비율은 중학교 2학년 1.32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는 1.14로 감소

<표 2> 부모의 학력수준별 학업성취도 추이

구 분	부모 모두 고졸 이하 (A)	부모 모두 대졸 이상 (B)	(B)/(A)
중학교 2학년 (2003)	51.8점	68.6점	1.32
중학교 3학년 (2004)	55.1점	70.5점	1.28
고등학교 1학년 (2005)	59.9점	68.7점	1.15
고등학교 2학년 (2006)	58.7점	67.8점	1.16
고등학교 3학년 (2007)	60.6점	69.3점	1.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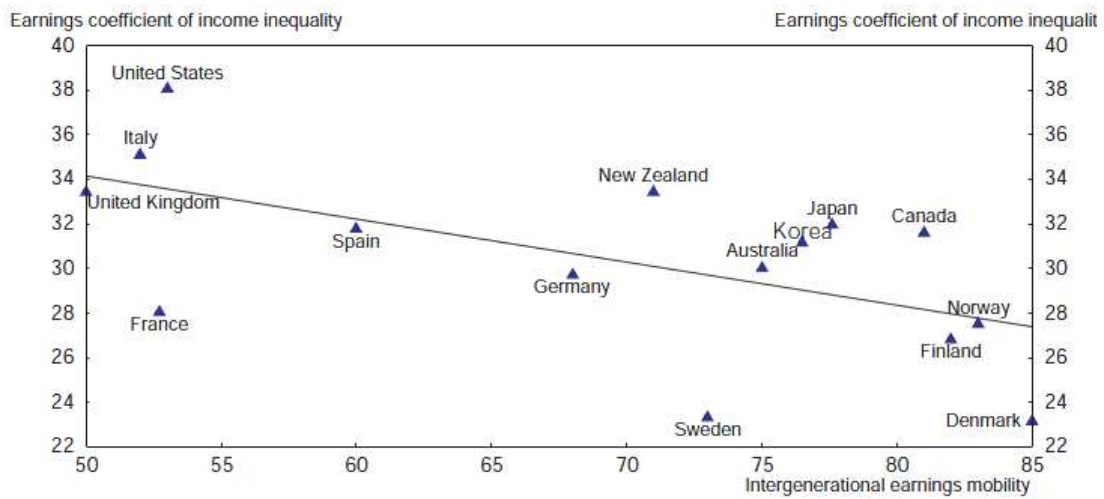
\* 대졸은 전문대 포함

□ 결론적으로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살펴본 교육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었다는 근거도 없음.

- 가구의 소득분위별 계층구분으로 분석하거나 혹은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계층구분으로 분석하거나 자녀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감소

- 교육격차가 감소하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과거에 비하여 계층 간 이동이 고착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.
- 참고로, 부모와 자식의 소득간 상관관계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 이동성은 호주 및 일본과 유사하며 이동성이 가장 높은 캐나다, 핀란드 등에 근접한 수준임.

<그림 1> 세대간 소득이동성



주: OECD(2011), 『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』 에서 재인용